

서울YWCA

2021 1/2
vol.610





압구정김밥(대표 이경규 개그맨)은 1998년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 140명에게 사랑의 도시락 제공

결식아동 돕기 캠페인

1997년 겨울 갑자기 닥친 경제위기로 결식 어린이와 노숙인이 늘어나자 YWCA는 YMCA, MBC와 공동으로 1998년 5월 6일부터 매월 '사랑의 먹거리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전개한 첫 번째 캠페인에는 서울교육문화회관, 롯데백화점, 매일유업, 대한제분, 신라명과, 서울식품이 기증한 식품이 모였고 기증품은 즉시 관악, 용산, 구로, 송파구의 25개 복지시설 내 수혜자 1천여 명에게 전달됐다.



서울Y · 신세계백화점 사랑의 대바자(1998. 4-5) 수익금은 결식어린이 372명의 방학 동안 점심식사와 학습지도에 사용



서울Y · 한국아쿠르트 캠페인(1999-2000) 5억8,233만원을 모금해 결식어린이 4,100명에게 2년 동안 급식비 전달

1998

서울 YWCA

vol.610

2021년 1·2월호

1월 공동기도

하나님,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처럼 자유의 새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욕망의 중력을 거슬러 은총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합니다.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인도해주십시오. 주님이 마음 두신 그곳에 우리 마음도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2월 공동기도

하나님, 작은 일에도 속절없이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 말게 하시고, 비난을 받는다하여 주눅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순례길로 삼게 해주십시오. 아멘

2 숫자로 보는 서울Y

4 새해의 말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6 서울Y 이슈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

8 현장 속으로
· 저지방 숙성 소고기 시장
· 화장품 과대포장 실태 분석
· 여성혐오 없는 웹툰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14 서울Y 소식
· 11·12월 뉴스
· 11·12월 행사안내
· 1·2월 캘린더

20 예술과 여성
기억의 산물, 치유의 힘이 되다
루이즈 부르주아

22 소비자 상담
SNS 기반 쇼핑물 소비자 피해

25 알림터

26 후원 소식

31 정기총회 특집
· 정기총회 순서
· 이사 후보 안내

36 하나님의 정원

<서울YWCA> 2021년 1·2월호 통권 제610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1년 1월 1일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위원장 나순복 부위원장 이희진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전복남 정영숙 정준선 최수경 최혜란 황정혜 편집 이종미 성지희 발행처 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BACK to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노병균
초원교회 담임목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마 7:25 새번역)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이제 식상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그 옛날 논어의 한 구절에서도 “군자는 근본을 세우고자 힘쓰니, 근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했고, 한국초대교회 어른 가운데 한 명인 김재준 박사도 이 구절을 인용해 삶의 지침을 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 것이 되었을까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일이 복잡할 때면 정공법이 제일이죠. 성경은 “기본”을 강조합니다. 늘 알기 쉬운 말로 가르친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마 7:24)는 말로 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초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기본, 곧 근본을 잃고서야 어찌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Y.W.C.A. 이름 속에 담긴 근본

그럼 우리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각자 다른 ‘나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공통적 기반은 무엇인가요? 아마 선배들이 꿈꾼 “YWCA”라는 이름 속에 그 근본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이름으로 “우리”의 공통적 기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는 “**늘 푸른 젊음**”입니다. YWCA가 이 땅에 씨를 뿌린지 한 세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늘 푸르려야 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시간과 함께 뛰어왔기에 우리의 역사는 늘 ‘오늘’입니다. 생각이 진부해지면 안 됩니다. 움직임이 굼떠도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웃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우는 현재형 젊음이어야 합니다.

Women's
Young
우리는 늘 푸른 젊음입니다

여성은 우리의 처음 사명입니다

Christian
기독은 우리의 생명력과 같습니다

연합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Association

“**여성**”은 우리의 처음 사명입니다. 인류는 여성이란 말에서 “생명”과 “사랑”의 기운을 느낍니다. 이는 논리나 젠더적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의 본성이나 영성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강줄기에 국경선이 없듯, 사랑 줄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겪었던 아픔을 지금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YWCA는 이미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기독**”은 이 나무의 생명력과 같습니다. 흙과 보이지 않는 땅 밑의 뿌리에서 나무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와 같은 감춰진 차원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무가 살아 있다는 증거는 나뭇잎과 열매에서 볼 수 있는데, 실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나무 끝 우듬지까지 연결해 주는 형성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독정신은 껍질 뒤에 숨어있는 섬세한 형성층과 같습니다. 속이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연합**”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무가 숲이 되는 신비가 “연합”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합니다.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돌봐줍니다. 가인은 동생을 찾는 하나님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창 4:9) 끔찍한 일을 범했지만, 부지 중 한 그의 말은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들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YWCA라는 이름으로 이 네 개의 주춧돌을 물려준 것 같습니다. ‘젊음’, ‘여성’, ‘기독’ 그리고 ‘연합’이 기본이 새해의 출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이 약하면 치장이 과도해지고, 이는 것이 없으면 말이 어려워집니다.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면서 주변이 복잡해지고 일이 어려워진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BASIC”. 밖이 춥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더 단단해지길 기도합니다.☺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

1020세대가 바라보는 교회 성차별

서울Y는 한국교회의 성차별에 관한 1020세대의 인식을 확인하고 성평등 교회문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평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비해 변화가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회의 제도와 문화에는 여전히 가부장적 관습이 잔재해 있다. 남성 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에 좌절하며 청년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교회공동체에 평등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Y는 한국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습에 대한 청년세대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성찰하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현상뿐 아니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부분에 주목해 가르쳐지지 않고 가려진 성경의 본문들과 그 해석과 설교, 제도와 의사소통 체계, 문화적 관습과 태도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해 온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교회의 전통을 들여다보았다.

이 조사는 이주아 교수(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강사)가 맡았다. 2020년 7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실태조사는 교회의 14-29세 청소년·청년 5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나이와 성별, 신앙생활의 연함과 신앙심 정도에 따라 분석했다. 설문조사의 정량적 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와 관련 전문가 간담회의 정성적 연구를 통합적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교육의 관점으로 본 한국 교회 성평등 실태

본 조사는 엘리엇 아이즈너(Elliot Eisner)의 명시적 교육과정, 내재적 교육과정, 영(0) 교육과정 개념을 토대로 교회 현장을 다층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 먼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본문과 해석에 대한 명시적 교육과정¹⁾ 차원의 인식을 확인했다. 남성중심적 성경본문과 해석은 가정의 위계(남자는 여자의 머리,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와 교회의 위계(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성역할 분업(여성의 임무는 가정을 지키는 일), 모성 강요(비혼과 비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순종 이데올로기(순종은 여성의 가장 큰 덕목), 착한 여자 낭만화(늘 몸가짐과 옷차림을 조심하고 순결하게 해야), 여성의 음녀화(남자는 여자를 조심하고, 자매들은 형제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등 명시적 교육과정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또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성별로 큰 인식차를 보였다. 내재적 교육과정²⁾에 나타나는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성을 육아의 주체로 전제하는 자모실의 명칭, 남성인물로만 지칭되는 교회공간과 부서 이름 등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조직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역자나 당회, 부서장과 임원 등 여전히 중요한 직위나 조직기구의 남성중심성이 드러나, 여성리더십을 확대할 제도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0)의 교육과정³⁾에서는 여성에 관해 가르치지 않거나, 특정 가치에 한정하여 가르치는 실태가 명확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와 성서의 여성인물과 여성 리더십, 성평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에 대해 '모른다(대체로/매우)'는 응답이 '매우 잘' 알거나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상당히 높았다. 특히 성경 속 여성을 주로 순종, 기도, 인내와 같은 덕목만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었다.

한국교회의 성차별에 관한 인식차

응답자들은 설문초기문항에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보다 더 성평등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각 출석교회의 현황을 짚어야 하는 설문응답과정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 설문 말미 교회가 성평등한지 다시 묻는 질문에는 교회가 불평등하다는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였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에 대한 불편함과 부당함을 지적했고, 성별을 막론하고 10대보다 20대가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 남성중심적 성경해석에 대해 1020세대 여성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낸 반면, 남성들의 경우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강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은 교회의 남성중심적 성경해석에 동의하는 비율(성경에 기록된 말씀

Q.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평등	어느정도 평등	보통	어느정도 불평등	매우 불평등
남성	설문초	36%	30%	22%	10%	2%
	설문후	16%	37%	26%	16%	5%
	변화	20%p↓	7%p↑	6%p↑	6%p↑	3%p↑
여성	설문초	9%	30%	33%	20%	8%
	설문후	6%	28%	28%	30%	8%
	변화	3%p↓	2%p↓	5%p↓	10%p↑	-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이다)이 다른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한국 교회에 놓여진 과제

첫째,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교회 문화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이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도 포함됨을 인식하는 신앙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회 안에서 성경적 여성 리더십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교육이 시급하다. 한국 교회가 차별 없는 성평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교회 현장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회 내 성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가 교회 내 성차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확산시키고 성평등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Y 정린 김에리 여성참여팀 부장

1) 명시적 교육과정 :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도록 허용된 분명한 개념, 인식, 가치 등
 2) 내재적 교육과정 : 교육기관에서의 경험과 교육환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
 3) 영(0) 교육과정 : 가르치지 않으므로 가르치는 역설적인 교육
 *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 보고서 2020>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성 소고기라면 '투뿔'일 필요 없어요

서울Y는 최근 소고기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숙성육에 주목하고,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건강을 살리는 먹거리의 하나로 저지방 숙성 소고기에 대해 알아봤다.

함께 생각해 보기

무조건 1**가 좋을까요?

맛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소고기 등급은 1**에서부터 3까지 총 5개 등급(1**, 1*, 1, 2, 3)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1**등급은 '투뿔'이라 불리며 맛있고 값진 소고기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데, 과연 비싼 만큼 좋지만 한 걸까?

1**등급의 진실

소고기 등급은 소의 근육 내 지방이 퍼져 있는 마블링을 중심으로, 소고기의 중량과 성숙도를 평가해 결정한다. 도축 후 이틀째 판정 후 소비자와 만나는데, 체중과 마블링을 위해 근육질보다 지방이 많은 소가 더 선호되기 때문에 등급이 높을수록 지방의 양도 많다.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지방이 살코기의 절반일 정도라고 하니, 버려지는 양이 많아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육류의 지방은 포화지방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마블링을 위해 고통받는 소

1** 등급의 첫째 조건은 근육 내 하얀 지방이 눈꽃처럼 펼쳐져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풀을 먹고 사는 소는 질경질경 씹어 먹고 게워내기를 반복하기 위해 위장이 4개로 나뉘어 있고, 오랜 세월 인간과 노동을 함께해왔기 때문에 단단한 근육도 상당히 발달해 있다. 그러나 빠른 시간에 많은 지방을 만들기 위해 풀 대신 고탄수화물의 사료용 옥수수 등을 먹어, 운동은 최소화해 소의 간에 염증이 생길 정도의 지방간이 형성되면 마침내 근육에 지방이 스며들어 1**등급 소고기가 된다.

* 숙성육 시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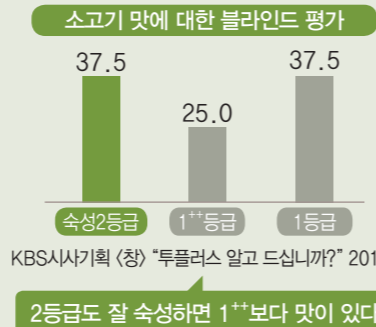
* 서울Y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종임 요리연구가와 함께하는 저지방 숙성육 쿠킹 클래스를 만나볼 수 있다



등급이 낮은 소고기는 맛이 없다?

낮은 등급의 소고기는 그만큼 지방이 적다는 뜻! 질기다는 인식이 있어 구이용으로 크게 선호하지 않지만, 저지방 소고기를 숙성시키면 1** 등급 못지 않게 부드러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소고기 등급을 알려주지 않고 평가한 결과, 2등급 숙성 소고기가 1** 등급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숙성 소고기는 낮은 등급의 소고기도 부드럽기 때문에 꼭 높은 등급일 필요가 없다.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이 생태환경을 바꿀 수 있다

소는 풀을 뜯어 먹고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수록 근육이 발달하고 지방이 적어진다.

저지방 소고기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면, 소의 습성은 존중하고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집중탐구! 숙성 소고기

숙성 원리

도축 후 소고기는 24시간 안에 사후강직이 일어나 단단하고 질겨진다. 시간이 지나면 내부 효소가 작용해 근조직이 부드럽게 되고 고기 자체 향미가 올라가므로 시간과 습도를 조절하면 단단한 부위를 부드럽고 탄력 있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둔, 보섭, 앞다리 등 같이 장시간 조리하거나 국거리로 사용하던 부위도 부드러운 구이용으로 변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숙성 방법

건식 Dry aging

- 자른 소고기를 포장없이 공기 중 노출 상태로 -0.5℃-3℃ 온도의 저장고에서 숙성
- 약 14-60일 정도 숙성 후 딱딱해진 표면은 자르고 속살만 섭취
- **장점** 숙성기간 동안 근조직은 약화되고, 고소한 버터향이 생긴다. 수분이 증발되어 고기 탄력은 증가하고 강한 풍미의 향이 남아 스테이크로 활용하기 좋다.

습식 Wet aging

- 자른 소고기를 공기가 닿지 않도록 진공포장(수분증발 & 산소 제거로 박테리아 번식 방지)
- 0-4℃ 온도의 냉장실에서 약 14-60일 정도 숙성
- **장점** 습식 숙성으로 부드러워져 조리 시간이 단축된다. 비교적 관리가 쉽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다.

눈꽃지방(마블링) 때문에 사육기간을 늘린다고?

부드러운 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마블링(근내 지방)을 늘리려고 사육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사육기간을 5개월 늘리면 채끝 부위 마블링은 4.23% 증가해 고기는 부드러워지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숙성기술을 이용하면 사육기간을 늘리지 않아도 되고, 2주 동안 숙성을 거치기만 하면 부드러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일석이조. 지구온난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육기간 : 5개월 추가 사육(국립축산과학원, 2005)
- 채끝 근내지방 함량 : 4.23% 증가
→ 전단력(고기의 질김 정도) 1kg 감소
- 지구온난화가스 배출량 : 1,709kg CO₂
(= 어린 소나무 633그루, 2013)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 화장품 과대포장 실태 분석

친환경 시장 제도 지원과 기업의 노력 필요

화려한 용기의 고가 화장품을 구입하고 실제 사용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 소비자라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에 서울Y는 화장품 과대포장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산·소비 행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화장품 포장재에 대한 소비자 인식(2020. 6. 11-24)과 화장품 포장 실태(7. 24-8. 18)를 조사했다.

화장품 과대포장 측정 기준과 소비자 체감 차이 줄여야

조사 결과, 소비자는 '과대포장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88.8%)가 대부분이었으나, 현행 과대포장 측정기준인 포장공간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준 준수율이 76.5%로 낮지 않았다. 이는 뚜껑·외부 용기가 크고 부자재가 과다하여도 현행 포장공간비율 측정엔 내부용적률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준과 소비자 체감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과대포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에게도 제조원가와 물류, 운송비용 상승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포장 용기의 두께나 외부 용기 크기나 부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장재 측정을 보완,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장품의 과대포장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단일소재 용기, 공병 수거 활성화 제도적 지원과 포장재 개선 노력 필요해

조사 제품의 67.6%(23개 제품)가 주된 용기 소재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본체 용기의 스포이드, 펌프, 캡, 뚜껑 등 보조 포장재는 조사제품 모두 플라스틱이 사용되어 화장품 용기의 플라스틱 사용률이 높았다.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실태조사에서도 분리가 쉬운 제품 11개(32.4%)뿐이었고, 어려운 제품이 23개(67.6%)로 2/3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조사 제품 34개 중 17.6%만(6개 제품 3개 브랜드) 공병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용기 재사(활)용 유인은 낮게 나타나, 금속·각종 장식 등 부자재를 줄여 용기를 단순화·단일소재로 제작하고, 유통채널과 협업 통한 공병 수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사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련업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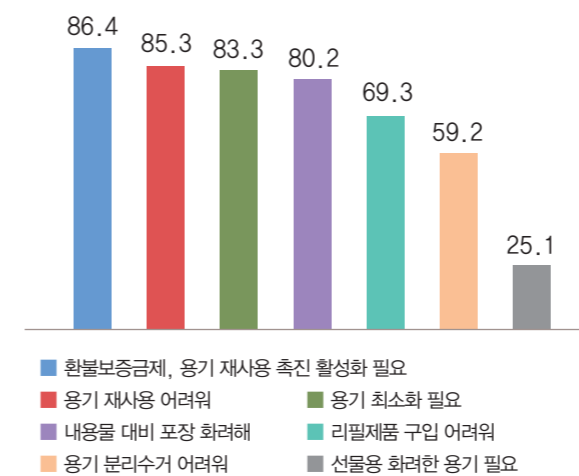
화장품 용기는 다른 소재끼리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이 쉽지 않다



분석 포인트

- ✔ 17개 브랜드 영양크림, 세럼 34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포장 재질 표시, 재활용성, 플라스틱 위험도 평가
- ✔ 소비자 88.8% '화장품 과대포장 있다' 인식하나, 포장공간비율 분석결과 기준 준수율 76.5%로 낮지 않아
- ✔ 과대포장 측정방법의 실효성 제고 검토 필요

화장품 포장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재활용·친환경 소재 정보 표시 장려,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안 마련해야

과대포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용기의 안전성과 친환경성도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사제품 중 단 한 개(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세럼) 제품만 폴리프로필렌(PP)을 사용해 위험도가 '비교적 안전했고, 나머지 22개 제품의 세부 재질은 모두 'OTHER'로 위험도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는 많지만, 정작 사용된 플라스틱의 위험도는 제품의 95.7%가 알 수 없었다.

플라스틱 세부 재질 표시 'OTHER'는 2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섞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시 내용으로는 어떤 재질이 포함된 플라스틱인지 소비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환경을 고려한 화장품을 선택하려 해도, 용기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식물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든 용기나 PVC를 섞은 용기나 모두 같은 'OTHER'로만 표기된다면 친환경 소비를 원해도 소비자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재활용, 친환경 소재 사용 정보 표시를 장려하고 용기 안전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친환경적 화장품 용기 시장 만들기 위한

정부·기업·소비자 협력 필요

이에 화장품의 포장재 관련 주무기관, 화장품 제조사, 유통 채널 등 관련 기업과 소비자(단체)가 협력하여 포장재 표시, 과대포장 방지 등 친환경적인 화장품 용기 개발 및 재사용·재활용 시스템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ʘ

정리_ 박진선 소비자환경팀 부장

* <화장품 과대포장 실태분석 결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토론회

여성혐오 없는 웹툰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이 웹툰 나만 불편해?'

서울Y는 12월 10일 <여성혐오 없는 웹툰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 이 웹툰 나만 불편해?>를 개최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웹툰PD, 웹툰 작가 지망생, 언론방송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70여 명이 참석해 웹툰 속 반복되는 여성혐오의 실태와 해결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2020년은 웹툰 속 소수자를 향한 혐오 및 차별 논의가 뜨거웠던 한 해였다. 지난 8월 기안84의 <복학왕>이 여성혐오적 장면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후 사의 <헬퍼2: 킬베로스>에서 미성년자를 성적대상화하고 성폭력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장면이 팬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며 웹툰의 여성혐오에 관한 비판여론이 거셌다. 올해 9월 서울Y가 실시한 <웹툰 속 차별 혐오 인식조사>에 따르면 작품 속 여성혐오가 문제라는 의견이 200명의 시민 응답자 중 87%(175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서울Y는 웹툰자율 규제위원회 위원장, 웹툰 비평가, 온라인 플랫폼 연구자를 한데 모아 웹툰 속 여성혐오 실태를 진단하고 성차별 없는 웹툰 제작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웹툰 <복학왕> 303화의 한 장면
여주인공 봉지은이 능력이 아닌 애교와 성적 매력으로 취업에 성공한다는 설정은, 채용 성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왜곡하며 여성 직장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여성혐오적 서사이다

인기 웹툰에서도 성차별적 사례 발견

창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의미로서의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여성참여팀 강유민 활동가는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네이버 및 카카오 페

이지 인기 웹툰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웹툰 속 성차별 현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한 웹툰은 2회차, 성차별적인 웹툰은 16회차가 발견되었으며 여성을 성적 도구화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논란이 된 웹툰 외에도 인기 웹툰들 또한 성차별적인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발제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위근우 평론가는 웹툰에서의 백래시에 주목했다. 웹툰 소비자와 창작자들에게서 여성주의적 비평에 대해 반발하고 오히려 윤리적으로 퇴행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메갈' 작가를 낙인찍기

나 웹툰 전개에서 공공연하게 여성혐오를 전시하는 사례들을 짚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흥난지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웹툰계의 자정적인 '자율규제'를 권장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기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규제를 창작자보다 앞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만화학과의 교수로서 수업에서 만나는 웹툰 지망생들이 창작자의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창작 기술에 집중된 교육에서 비판적 접근을 강화한 창작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수아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교수는 기업 내에서 혐오표현 관련 규정이 차별의 논의가 아닌 '명예훼손'으로 다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이야기했다.

반복되는 웹툰 속 성차별에 대한 답답함에서 나아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 라운드테이블

2부는 참가 신청 시 받은 시민들의 질문을 토대로, 서울Y 모니터단이 발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되었다. 최근 <인생존망> 웹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한 것에 대한 질문부터 플랫폼에서 작가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이 가능할지, 웹툰 댓글은 그 해악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것인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 함께한 시민들도 질문들에 공감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웹툰 속 여성혐오에 대한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함께 만들어 갔다.

토론회가 끝나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는 "이런 자리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답답함에서 벗어나 유익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라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뜨거웠던 그날의 현장은 추후 서울Y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웹툰이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 발전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이번 토론회가 웹툰의 성차별성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 형성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 Y 정리 강유민 여성참여팀 활동가



왼쪽부터 강유민 여성참여팀 활동가, 위근우 평론가, 흥난지 웹툰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김수아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창립 98주년 기념예배

서울Y는 12월 9일 창립 98주년을 맞아 비대면 기념예배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배현주 목사(전 부산장신대 교수)는 출애굽기 1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배 목사는 출애굽의 선두에는 모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 이야기에 주목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분별력과 결단력으로 생명을 살려낸 십브라와 부아처럼, 서울Y도 주님의 빛과 사랑 안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려 나가자고 권면했다. 또한 강한 팀은 개인의 연미에서 비롯되듯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개인으로 생명을 살릴 힘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올해는 성탄모임을 갖지는 못했지만 아쉬운 마음을 담아 98주년 기념 영상 '다시 돌아올 그날'을 함께 시청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으며 하루빨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만나 함께할 그날이 오기를 기원했다.

온라인 평화통일콘서트

서울Y는 11월 14일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평화통일콘서트를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 3만3천 여 명(2019 통일부) 중 여성이 72%에 이르고, 북한이탈여성과 그 자녀가 한국에서 겪는 차별과 무시는 그들의 부적응과 불만족으로 연결되어 탈남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Y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립지원과 남북통합을 목표로 회사를 운영하는 북한이탈여성 CEO와 함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천 북한민 행복의 집' 이순실 본부장, '유니시드'의 엄에스터 대표



의 강연을 듣고 북한이탈여성의 자립과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들의 역할 등에 관해 질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콘서트 이후에도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청년 여성을 위한 남북합작 스타트업을 구상해보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평화지킴이로서의 몫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봉천

김장 나눔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관악구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에 참여했다. KT&G복지재단 후원으로 마련된 김치는 12월 16일 폭우, 코로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김장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 200세대에 지원됐다.



노원

멘토링 네트워크 온라인파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12월 9일 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으로 취·창업멘토링지원 네트워크 파티를 열었다. 줌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우순영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참석해 여성창업 지원·사회적 경제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취·창업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함께 알아볼 수 있어 호응이 높았다. 올해는 멘토링지원을 통해 4개의 준비반이 연극, 커피, 예술온라인수업, 4차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누리봄

봄봄을 입다

누리봄은 11월 28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특별행사 '봄봄을 입다'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으로 열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봄봄에서 생산한 의류를 홍보하는 패션쇼와 함께 누리봄 아동들이 출연한 연극 <내복여왕>이 펼쳐졌다. 패션쇼에는 봄봄 가족들과 함께 서울Y 임원진이 모델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영등포

여성취업박람회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11월 19일 영등포구와 공동으로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구와 함께한 취업박람회로, 올해는 현장 진행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화상면접도 실시했다. 22개 기업이 면접업체로 참여하고 구직자 110명이 면접에 도전해 1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강남

청소년 Online Show 음악중심

강남청소년수련관은 2020 강남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Online Show 음악중심'을 언택트 축제로 열었다. 청소년동아리 8개 팀이 11월 7일 공연을 사전 촬영한 후 11월 21일 수련관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열흘간 조회수 8,693회를 기록한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은 재능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코로나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위로했다.

미얀마 여성 권리증진 프로젝트

서울Y는 2018년부터 미얀마 탄파웅지 지역에서 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탄파웅지는 지난 70년간 미얀마 정부군과 카렌민 족첩합의 분쟁으로 주민의 삶이 파괴되어 사회경제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Y가 미얀마Y와 손잡고 지역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미얀마 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2020년에는 여성발전센터(Women Development Center)를 증축해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미얀마 여성이 양질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 20명의 여성은 봉제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블라우스와 하의 제작 방법을 익히고, 12월 중순부터는 보카렌 소수 민족의 고유 자수 방법을 배우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Y는 미얀마 여성 권리 증진 프로젝트를 통해 미얀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정부 관계자들의 젠더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활동을 계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미얀마 여성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경제적 자립은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인증제 홍보



서울Y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홍보 사업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유기농·무농약·GAP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축산물 중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올해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 서포터즈 5기 15명을 선발

해 6개월 동안 총 400여 개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게시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 저탄소 농산물 소비 촉진 공동 캠페인을 진행해 전년보다 3배 높은 매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홍보가 어려운 부분은 온라인 홍보로 대체했다. 또한 고양Y, 수원Y, 창원Y와 함께 15명 내외로 소규모로 진행하며 랜선 현장체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생생한 농가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온라인 공동구매 '우리 농가 덕분에'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제철 농산물을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많은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울Y 유튜브 채널 소비로 환경을 지키는 해법 '소환해' 코너에서는 다양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유기농은 왜 비쌀까?, 상추CEO와 함께 랜선 현장체험 떠나요, 요리하는 배우 서태화와 함께 저탄소 농산물로 만드는 이태리 요리 클래스를 선보였다.

제99회 정기총회

- 일시 2021년 1월 28일(목)
- 문의 02-3705-6001, 6017

서울YWCA 제99회 정기총회가 2021년 1월 28일(목)에 열립니다. 제99회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 감사·결산·사업보고와 함께 2021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하며 회원을 대표해서 일할 이사를 선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안내합니다.

봉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온라인 모금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1인 가구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온라인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 모금 기간 2021년 2월까지
- 지원 내용 청소 비용, 필수 가전·가구 등
- 목표모금액 7,000,000원
- 모금 주소 <https://url.kr/YMERO2>
- 모금함 바로가기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해 드립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1월 14일(목) 2월 24일(수) 9:00-17: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1월 14일(목)-15일(금) 2월 24일(수)-25일(목) 9:00-17:00	10만원
세이프맘			
간병사	60세 이하 관련자격 소지자 우대	1월 19일(화) 2월 23일(화) 13:00-17: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5 / 02-3705-6071~2

영등포 원데이 클래스 • 문의 02-858-4514

과정	일정	교육비
향긋한 새해! 꽃차 특강	1월 11일(월) 10:00-13:00	5만원 (재료비 포함)
새해 티타임에 어울리는 스콘 만들기	1월 18일(월) 10:00-13:00	5만원 (재료비 포함)

노원 신규 프로그램 • 문의 02-951-0187

과정	일정	교육비
가족소품 만들기	1월 4일-2월 22일 (매주 월) 14:00-16:00	9만원 (재료비 10만원)
파스텔 그림	1월 7일-3월 4일 (매주 목) 15:00-17:00	8만원 (재료비 3만원)

CALENDAR

2021 **1**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4 위원회 명예 11:00	5 위원회 재정부 11:00 창립 100년 준비 회원·조직 분과 13:30	6	7 위원회 총회준비 15:00	8	9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11 위원회 역대이사 11:30	12 이사회 10:00 위원회 창립100년준비 비전·모금 분과 13:00	13	14 ·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아기·세이프맘, ~15일) 9:00	15 위원회 강남Y 11:00	16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4:00
18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19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0:00 소비자환경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 돌봄회원 신입교육(간병) 10:00	20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21 위원회 여성참여팀 13:30 여성능력개발팀 11:00	22	23 · 피스톡톡 정기모임 11:00 · 씩크머니 정기모임 15:00
25 위원회 봉천Y 11:00	26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7	28  제99회 정기총회	29 · 봉천 저소득가정 입학지원금 전달식 14:00	30 · 그린Y 정기모임 13:00

CALENDAR

2021 **2**

월	화	수	목	금	토
1 위원회 명예 11:00 · Access 영어교육(한꿈학교, 매주 월·금) 9:30	2 위원회 재정부 11:00	3 · 봉천 시설운영위원회 11:00	4	5	6
8 위원회 역대이사 11:30 · 봉천 어르신 설맞이 행복나눔행사 14:00	9 이사회 10:00	10	11	12 설날	13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10:00 · 누리봄 훌터데이 13:00
15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16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0:00 소비자환경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7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18 위원회 여성참여팀 13:30 여성능력개발팀 11:00	19 위원회 강남Y 11:00	20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월례회 아기돌보미·산후조리사 정기총회 10:00 요양보호사 정기총회 13:00 가사돌보미·간병사 정기총회 14:00 · 그린Y 정기모임 13:00 · Y-탄 서포터즈 정기모임 15:00
22 위원회 봉천Y 11:00	23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 10:00	24 ·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아기·세이프맘, ~25일) 9:00	25	26	27 · 피스톡톡 정기모임 11:00 · 씩크머니 정기모임 15:00

기억의 산물, 치유의 힘이 되다

루이즈 부르주아



루이즈 부르주아
Louise Bourgeois
1911. 12. 25-2010. 5. 31

거미를 생각하면 징그럽고 불쾌한 곤충의 이미지나 영화 <스파이더맨>을 떠올릴 지 모른다. 사실 거미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온 곤충으로, 이런 거미를 모성애의 상징으로 비유해 어머니의 이미지를 입힌 예술가가 있으니 바로 루이즈 부르주아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프랑스 파리에서 중세 태피스트리를 취급하는 갤러리를 가진 부유한 가정의 1남 2녀 중 둘째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여행을 다니며 여기 저기서 일감을 가져왔지만 대부분의 일은 어머니 몫이었다. 어머니는 낡은 태피스트리를 기워 수선하고 직접 공방을 운영했다. 부르주아는 12세 때부터 가정의 사업을 도와 태피스트리 문양을 드로잉하는 일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 백화점에서 샤넬 옷만 사다 줄 만큼 돈이 많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권위적이었으며 심한 언어폭력이 있었다. 더구나 자녀의 영어 가정교사와 바람이 나서 그를 집안에 들였는데 그가 임신하자 더 이상의 자녀는 필요 없다며 영국으로 쫓아 버리기까지 했다. 부르주아의 어머니는 똑똑하고 부지런하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녀에게는 친구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남편의 감정이 폭발할 때를 대비해 깨뜨릴 도자기를 항상 식탁 위에 올려놓곤 했으며, 남편의 불륜에도 항거하지 못하고 묵인하는 나약한 모습 또한 있었다. 이러한 가정 분위기는 부르주아의 작업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작업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의 대상이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손바느질로 천을 꿰매 만든 인체 작품

부르주아는 그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소르본대학에서 기하학을 공부했으나 1932년 어머니의 죽음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기하학에 흥미를 잃게 되자 예술세계로 눈을 돌린다.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휴머니티스아카데미 원장



무제 2002. 천, 38.1x30.5x30.5cm

그 후 몽마르뜨에 있는 화가들의 작업실을 드나들며 그림을 배우고, 예술가는 식충이라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콜 드 보자르에 입학한다. 당시 입체파 화가 페르디낭 레제는 부르주아가 평면보다 입체에 대한 감수성이 더 좋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부르주아가 기하학을 공부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훗날 그는 조각가로서 명성을 얻게 된다. 부르주아는 아버지의 태피스트리 갤러리 옆에 판화 가게를 열었는데 1937년 그곳을 방문한 미국 미술사학자 로버트 골드워터 교수를 만나 결혼 후 1938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여 미국인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살아가게 된다.

부르주아는 초기와 중기에는 석고, 나무, 라텍스 등의 재료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양극성적인 작품, 밀실 같이 폐쇄적 공간 등 억압된 무의식을 표출하는 작업을 많이 했다. 1995년부터는 손바느질로 천을 꿰매 만든 인체 작품을 많이 했는데, 작품 표면에는 바느질 자국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바늘과 실은 그의 어머니가 항상 다루던 것이기도 하고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의 기억과도 연관이 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아버지가 전사할까봐 전전긍긍하던 그의 어머니의 심리는 그에게도 전이되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상이군인들의 모습은 어린 그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천으로 인체를 만드는 작업은 온전한 신체로 되돌려주는 것임과 동시에 스스로 내면의 상처까지 치유하고 온전해지는 과정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모성애를 상징하는 거미 조각 '마망'

그는 1990년대에 거미를 주제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1997년 제작한 거대한 거미 조각 마망(Maman, 불



마망(Maman) 청동과 대리석, 높이 약 9.1m x 지름 약 10m.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앞

어로 엄마를 뜻함)은 그가 만든 가장 큰 거미 조각으로 그의 어머니,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상징한다. 부르주아 스스로도 1973년 사망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과 입양한 또 한 명의 아들이 있는 어머니였다. 청동으로 높이 9.1미터 이상, 지름 10미터 정도가 되게 만든 거대한 마망은 가느다란 8개의 다리로 땅에 지탱하여 서 있는데 다리는 분리가 가능하고 바닥에 나사로 고정되어 있다. 복부에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알주머니가 있고 그 속에는 12개의 럭비공 크기의 하얀 대리석 알이 들어있다. 부르주아는 어머니가 작업할 때 쓰던 실과 거미줄을 함께 연관시켜 생각하면서 자녀를 품는 여성의 따뜻함, 연약하지만 강인하게 버티는 힘을 드러내고 있다. 마망은 세계 6개국에 전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미술관 리움에서도 볼 수 있다. 부르주아는 2010년 99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외부 출입은 어려웠으나 매일 오전 4시간씩 작업을 하고 사람들의 방문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그들을 통해 세상 소식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노인이었다. ♪

SNS 기반 쇼핑물, 주문한 내 상품은 어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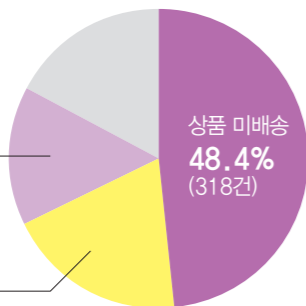
최근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쇼핑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SNS 기반 쇼핑물이란 기존의 인터넷 쇼핑물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상품 거래와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물을 말한다. 최근에는 SNS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만 하고 판매는 링크를 연결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SNS 기반 쇼핑물 구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한국소비자원 통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은 낮아진 데 반해, 경제적·제도적 기반이 열악하고 취약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례1 주문한 지 세 달, 도대체 언제 오는 거죠?

Y씨는 카카오톡 상단의 광고창을 통해 SNS 쇼핑물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계좌로 8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3개월이나 배송이 지연되었고, 이미 재킷을 입을 수 있는 계절도 지나가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주문한 지 두 달째까지는 '배송 예정'이라는 답변만 하다가 그 뒤로는 연락이 두절됐다.

Y-상담 쌤's tip SNS를 통한 거래는 DM(쪽지)·메신저·비공개 댓글 등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와 같은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현금결제(계좌이체)만 가능한 판매자와는 거래를 되도록 피하세요.

사례2 후기가 좋아서 구매했는데, 조작된 후기였어요!
W씨는 인스타그램을 보다 구입 후기가 좋은 블라우스를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 보니 품질도 디자인도 제시된 상품설명과는 달랐다. 알고 보니 후기 게시판이 조작된 것이었다. 업체에서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기를 당하니 너무 황당하고 후기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Y-상담 쌤's tip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 순서나 상품 판매순위를 정해 소비자에게 노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됩니다. 구매 전 소비자는 후기를 꼼꼼히 살펴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3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줄도 모르고 당했어요!

A씨는 페이스북을 보다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할인한다는 SNS 광고를 보고 구매했다. 광고를 클릭하니 선글라스 브랜드 사이트로 연결됐고, 기존에 잘 알고 있던 브랜드라 의심 없이 구매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 사이트였고 결국 제품은 받지도 못하고 손해만 봤다.

Y-상담 쌤's tip SNS 광고를 통한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칭 사이트 URL의 경우 기존 사이트와 동일한 알파벳을 넣는다는 등 주소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헛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어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었는데, 소비자원은 동일한 사업자가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폐쇄하기를 반복하며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워드 코로나 시대이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악의적으로 기만하는 사업자들은 어떤 말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특히 SNS라는 매우 파급력 높은 플랫폼상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견줄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SNS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비자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은 팔로워에 대한 명백한 사기 범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정리_ 김보민 소비자환경경민 간사

현명한 소비자라면!

1.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 통신판매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신판매사업자)
- 피해 다발 업체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2. 판매자가 제공한 계약 내용, 배송 안내 일정, 입금 내역 등을 캡처해 보관

3.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에스프로 제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PG사) 등 안전 거래 방식 이용

4. 상품 수령 후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품 전 제품의 상태를 촬영해 반품 후 착용 흔적, 오염 등을 이유로 한 판매자의 청약철회 거부에 대비

5. 판매자의 상품 미배송,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은행·카드사 등 결제업자에게 환급 사유를 고지, 결제대금 지급 취소 요구

- 에스프로 계좌 이용 시 : 은행 등 에스프로사업자에게 이체 거부 통보
- 신용카드·PG업체 이용 시 : 카드사 또는 PG사에 환급 사유 고지, 결제대금 지급 취소 요구



주름은 따로. 제대로. 레티놀로.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만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9.16-10.17 피연체이피부임상연구센터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

알림터

병원동행 서비스

혼자 병원 외래 진료나 당일 검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정에 동행하면서
복잡한 병원 업무를 편안히 도와드립니다.

- 지역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서울 시내 병원
- 방법 이용일 3일 전까지 전화상담 후 온라인 결제
- 비용 기본 4시간 72,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www.ywccare.com

검색창에 '서울돌봄과살림'을 검색하세요
- 문의 02-3705-6071

서울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

우리나라 최초의 간병사 교육·양성 기관인
서울YWCA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어르신
내 용	신체활동·일상생활·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간병 서비스
근무 시간	• 오전·오후(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9-18시(8시간) 출·퇴근 서비스 • 월-토(24시간) 입주 서비스

※ 요양보호사·간병사 수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02-855-8826 / 010-3480-8826



서울돌봄과살림 연회비 인상 안내드립니다

신뢰와 섬김으로 생명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서울YWCA 돌봄과살림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돌봄 회원에게 감사가 넘치는
좋은 일터를 제공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YWCA 돌봄과살림은 2013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7년여 동안 돌봄서비스 연회비를
인상 없이 50,000원으로 운영하며
신뢰받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부득이하게
2021년 1월 1일자로 돌봄서비스 연회비를
6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연회비 유효 기간은 회비납부일 기준으로 1년이며
매년 납부해 주셔야 서울돌봄과살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아울러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돌봄회원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응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돌봄회원의 인성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 깊은 정성을 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11월

특별 후원



일시 후원

김재신_기독교성주의 사업, 중보기도회
이종임_안전한 먹거리 사업
최지은_장난감·문구류 기증
한혜영_창립 100년 비전·모금분과

정기 후원

박미란 윤정자

복지사업단 후원



강명희 강민아 강서현 고려욱 고선혜 곽민규 김도근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윤희 김인복 김종한
김한주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효신 나순복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변옥균 서혜영
석성욱 송순옥 심영자 양선희 양수경 양진화 오점희 오준호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관우 이명희 이미리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종미
이행자 임중현 장경미 장경세 장민경 장수자 정석용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연신 조정현 조종남 지복임 채재호 최 봄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난민소녀 학교 보내기 후원



김정순 송순옥 월요까페 문화자 이흥자 임은유 정수경
조종남

재능 기부



- 이경순(명예위원)
회보 2020년 11·12월호 '하나님의 정원' 원고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회보 2020년 11·12월호 '예술과 여성' 원고
- 정무성(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
12월 이사회(12월 8일) 온라인 특강
'사회복지시설 환경변화와 부속시설 운영'
- 김영애(원주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창립 98주년 기념예배(12월 9일) 특별연주
- 앙상블 '이안'
실무자 성탄예배(12월 15일) 특별연주

핑크박스 후원



구영숙 박대화 배정미 염현경 오경아 우정현 이윤선 이재림
임지영 장영욱 정정심 조순영 채서은 최경자 최유진(위호정)

북멘토링 후원



구영숙 권영아 김민아 김상희(김한나) 김선자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나순복 박나영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연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선희 양진화 염현경 우영숙 월요까페 이명아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종미 이푸루하 이희정 임재연 장영욱
전은금 정나미 정 수 정정심 최동수 최 봄 최수경 최정우
최한나 한혜영
도서후원 정모아

월 CMS 후원



김운우 감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보경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옥수 강유민 강윤정
강윤희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창우 강춘호 강총모 강하자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미
고은정 고은희 고인미 고재욱 고현진 고희애 고희준 공명주
공우재 곽동윤 곽민정 곽승희 곽지영 곽지훈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민석 권범찬
권성기 권성준 권영아 권예현 권오상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지민 권형관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가은 김경금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일 김경화 김경희 김관옥
김광수 김귀숙 김규영 김규진 김기연 김기욱 김기욱 김기중
김기홍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진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희 김광순 김말녀 김명숙 김명순 김명후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숙 김미재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선 김민성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병호
김병희 김보라 김보미 김보민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길
김봉미 김봉희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우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우
김성은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용 김세진 김세현 김소담
김소망 김소영 김소정 김소희 김소희 김수림 김수언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시은 김양선 김양숙 김연정 김예서 김연경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미 김영순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자 김영주 김영주 김영해 김예지 김옥매 김옥민
김옥순 김용갑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리 김유진 김윤나 김윤숙 김윤주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의열 김익동 김민선 김지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영 김재진 김정규 김정기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욱 김정완 김정우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용 김종운 김종원 김종진 김종하
김주진 김준희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숙 김진주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재담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현
김태연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평배 김한나 김해정 김현경
김현경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정 김혜진 김호정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화진 김화숙 김효은 김 훈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상화 남희숙 노남례 노미소 노수연 노영식
노정자 노혜란 노희수 당효성 동주현 동지현 류이라 류종철
류 혁 류형정 마연희 마초희 명재미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영석 문영은 문현숙 문형규 민경술 민명자
민선기 민수현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박경옥 박경지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명순 박명원 박명윤 박미경
박미경 박미영 박민경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영 박선옥 박선주 박성중 박소영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순규 박순애 박순애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용진 박운용 박윤술
박은별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지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길 박종인 박종화 박종희 박주희 박지수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아 박찬영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환 박현경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자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반미복 방혜영 방혜정 배광순
배동숙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유주 배은경 배은진
배재호 배정미 배정숙 배정인 배진영 배호성 백미리 백민경
백민주 백수정 백옥선 백인성 백정화 백 준 백향덕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산드라운 서근배 서문세 서미화 서분이 서빛나
서승훈 서영미 서옥덕 서옥희 서우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 서주희 서지영 서춘자 서현욱 서현정 서현지 서효욱
석상화 석성욱 석영미 석지윤 선정환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미은 성시욱 성연석 성연진 성운수 성은숙 성익경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호숙 손봉희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광호 송길래 송병우 송보국 송상경 송선희 송성인
송세실 송영채 송욱의 송윤주 송은찬 송이라 송재민 송정민
송종우 송주원 송지언 송창은 송태언 송하림 송하윤 송혜승
송혜영 송효수 송희승 송희재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동진
신동하 신민자 신상우 신서현 신승은 신승주 신연식 신영순
신에서 신용자 신우람 신재은 신지에 신지윤 신청희 신총섭
신필수 신현미 신현수 심경호 심다영 심위현 심재원 심정자
심진수 안병세 안병수 안상호 안성원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재숙 안정희 안주영
안주희 안지혜 안진영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근해
양기혁 양명옥 양선희 양수정 양여경 양영순 양영애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주희 양진영 양현욱 엄금란 여명진 여춘자
여현주 염명경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염혜정 오규아 오미영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지영 오충민
오태영 오희래 온기석 왕정환 왕창식 우성도 우수경 우승현

후원 계좌

농협 386-01-020282

(예금주 :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영숙 우은미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경숙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동미 유동미 유영숙
 유문형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숙 유승연 유승호 유연숙
 유원균 유은경 유은숙 유은정 유재미 유재순 유재학 유재현
 유정선 유정한 유주빈 유지영 유진선 유현숙 유희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교희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서희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승숙
 윤이름 윤은희 윤장범 윤재숙 윤정자 윤정향 윤정화 윤지완
 윤혁 윤현진 윤형석 윤혜령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건호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계숙 이국열 이규택 이규화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남연 이돈행 이동수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은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 이명옥 이명원 이명자 이명중 이명혜 이명호
 이미지 이미진 이미희 이민석 이민선 이민자 이민정 이범석
 이범재 이병진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사랑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선덕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수범 이수연 이수진 이수영 이수옥
 이순우 이순자 이순재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일
 이승재 이승준 이승진 이승진 이승철 이승한 이승현 이승혜
 이시현 이신현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양출 이연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순 이예은 이옥경 이옥숙 이옥식 이옥호 이원경
 이원애 이원희 이우리 이유림 이윤경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경 이재림 이재옥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재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환 이정환
 이정희 이재욱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숙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중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윤 이지현
 이지현 이창준 이창희 이채진 이천희 이춘옥 이춘원 이택완
 이푸름하 이필영 이한기 이한성 이한승 이행남 이행자 이한국
 이현숙 이현아 이현옥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진 이혜진 이희남 이희전 임등자 임명희 임미경
 임병남 임병일 임선녀 임성은 임성희 임연수 임우택 임재원
 임정진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중현 임지현 임지현
 임지혜 임한솔 임현정 임현주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계숙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승화
 장영규 장영미 장영신 장영옥 장용익 장윤정 장인숙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영 장화정 장휘진 장희자 전민구
 전복남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화 전유오 전윤숙 전은경
 전은금 전은미 전인옥 전재수 전정연 전행옥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계숙 정동신 정명숙 정미선 정미희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새와 정서진 정선주 정선희 정소영 정소희 정수경
 정순옥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유리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심 정정애
 정정은 정정일 정제희 정종화 정준선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태순 정태순 정한솔 정해운 정현아
 정현옥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승 정혜윤 정화자 정희주
 제오복 조규성 조근묵 조기숙 조길수 조남익 조명희 조미선
 조미숙 조보형 조선영 조성미 조성미 조성호 조세환 조수정
 조시원 조연신 조예성 조예은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준하 조진희 조춘숙 조하은 조현희 조혜성
 조혜전 조호선 조홍신 좌혜선 주명애 주민숙 주수은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주혜성 지경표 지영 지영찬 지인 진영선
 차경희 차미라 차성호 차의철 차지혜 차학주 채승화 채승화
 채은주 채재호 채정림 채지영 채지은 최경자 최광기 최도애
 최두훈 최명민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봄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경 최수희 최순근 최순자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안순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윤영 최유진
 최윤희 최은주 최인숙 최정숙 최정호 최정희 최중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호 최지희 최태영 최현경 최현경
 최현경 최현주 최혜련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하희영 한가원 한경희 한규철
 한규철 한금례 한다정 한민희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정 한정신 한정원 한지현
 한지훈 한지희 한현식 한혜정 함경미 함경화 함봉진 함화순
 허경희 허영록 허영숙 허웅 허자영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영주 현은순 홍경화 홍낙기 홍성희 홍수연 홍유진
 홍은미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학희 홍현표 홍호성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은경 황주혜

(주)시공디자인 (주)아이린앤컴퍼니 (주)제이티 (주)체험왕

예민한 눈가 피부 대하듯
 얼굴 피부도 똑같이
 아이크림이 필요 없는
 더블 이펙트 아이포올 크림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코어 에너지로
 다시, 힘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다



ISA KNOX

http://www.isaknox.co.kr isaknox_official 전국 대형마트, 보배(LG화장품전문점), 네이처컬렉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농협 386-01-020282

(예금주 : 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기도문 집필 감사합니다

2021년 공동기도문은 김기석 목사(청파감리교회)님이 집필해 주십니다

창립기념예배 헌금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드린 서울YWCA 98주년 창립기념예배(유튜브 생중계)에 함께해주시고 소중한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헌금 2,868,000원은 여성노숙인 쉼터 '아가페의 집'에 전달했습니다.

복멘토링프로젝트에 함께할 복멘토를 기다립니다

“따뜻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어가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복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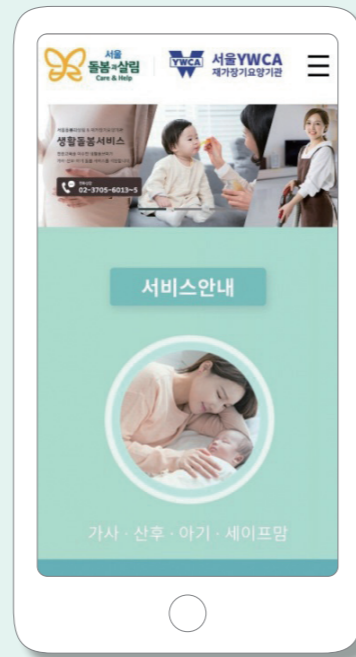
(최소 24개월)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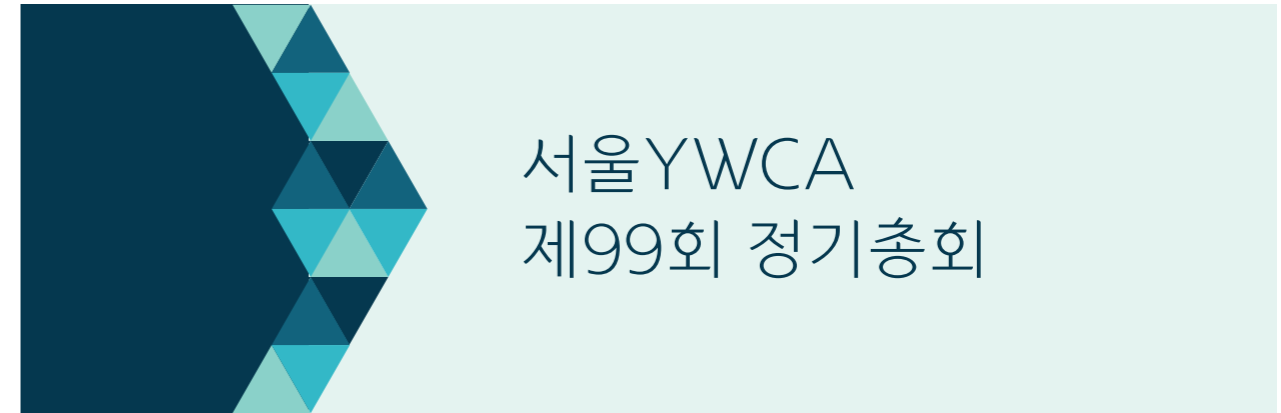
편리한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Play스토어에서 '서울YWCA'를 검색하세요!

안드로이드 기반 앱 스토어에서(iOS 기반:아이폰 제외) '서울YWCA 생활돌봄&요양' 앱을 설치하시면 쉽고 빠르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은 물론 돌봄전문가로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돌봄회원님도 앱을 통해 필요한 교육일정 확인은 물론 구직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가사·산후·아기돌봄 02-3705-6013
간병·병원동행 02-3705-6071
방문요양 02-855-8826



서울YWCA 제99회 정기총회

날 짜 : 2021년 1월 28일(목)

서울YWCA 제99회 정기총회가 2021년 1월 28일(목)에 열립니다. 제99회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 감사·결산·사업보고와 함께 2021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채택하며 회원을 대표해서 일할 이사를 선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서울YWCA 회장 이 유 립
사무총장 양 선 희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안내합니다.

2021년 1월 28일(목)

등록·투표·다과 10:00-14:00
본회의 13:30

개회예배	회장 이유림
총회사	회장
목적제창	다같이(일어서서)
서기·대표위원 지명	회장
표창 - 감사패·봉사상·근속상·회원증모상·이연배봉사상	회장
진행규칙위원장 및 위원 지명	회장
계수위원 지명	회장
진행규칙 낭독	진행규칙위원장
전회의록 통과	회장
2020년도 감사보고	감사 오윤숙
2020년도 결산보고	회계 이복희
2020년도 사업보고	사무총장 양선희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회장
- 2021년도 사업계획(안)	사무총장
- 2021년도 예산(안)	회계
개표결과 보고	대표위원장
당선이사·공천위원 선서	당선이사·공천위원
폐회예배	부회장 한혜영·배은경
회가제창	다같이(일어서서)
폐회선언	회장

제99회 정기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서울YWCA를 이끌어 나갈 이사를 선출합니다.
각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천위원회에서 심의·공천한 후보자들을
기호 순으로 소개합니다.

※ 기호는 후보들의 추천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 투표방식은 추후 안내합니다

프로필

- 1 출생연도(나이)
- 2 직업
- 3 YWCA 경력
- 4 사회활동 경력
- 5 출마 소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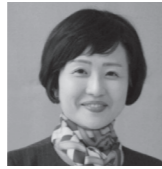
장영옥



1. 1951년(69세)
2. 주부
3. 1993년-현재
강남청소년수련관·선교부·여성능력개발부·재정부 위원
가락종합사회복지관·소비자환경부 부위원장
소비자환경팀·선교부·홍보출판팀·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제2서기이사, 제1 회계이사
(현) 여성능력개발팀 위원장
인사지도자양성부 위원
4. 서울영동교회 집사
5. 이사 후보로 나서는 것도 봉사라는 선배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음 후보의 자리에 섰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사로 선출해주신 여러분의 사랑으로 12년을 이사로 활동할 수 있었고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YWCA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던 세상 밖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 Y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매 순간마다 깨달아 알게 해준 Y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받은 사랑 돌려 드리는 또 한 번의 이사 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2

이유림



1. 1968년(52세)
2. 서울YWCA 회장
3. 2005년-현재
기획부·재정부·회원부·복지사업단 위원
가락종합사회복지관·선교부 부위원장
청소년팀·인사지도자양성부 위원장
제1 회계이사, 제1 부회장
(현) 회장(제29대)
4. 정동제일교회 권사
한국YWCA연합회 간사
쉽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운영위원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서울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위원
서울시 생명유지위원회 위원
제3보형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위원
서울시 명예의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
5. 작년 한해에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서울YWCA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9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 기독교 여성 단체인 서울YWCA에서 자원활동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때에 따라 주어지는 직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으로 실천의 기회를 삼았으며, 여러 선배님들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Y 운동의 방향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서울Y의 구조와 조직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100년 이후의 세상에서도 지속가능한 서울YWCA가 되기 위한 도약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법, 식에 따라 Y의 목적을 이루길 원합니다. Y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의 한 부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선덕



1. 1972년(48세)
2. 중국어 통·번역가
3. 2013년-현재
청소년팀 위원
청소년팀 부위원장
(현) 여성참여팀 부위원장
4. 소망교회 집사
조선일보 중국어뉴스팀 편집기자
5. 서울YWCA에서 자원활동가로 봉사했던 지난 8년을 뒤돌아보면 '깨달음'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한다'는 목적문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동안 익숙했던 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에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스스로를 충실히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이제 이런 소중한 감사한 경험을 더 많은 서울YWCA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바람으로 다시 한번 이사에 출마합니다.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된 서울YWCA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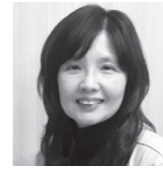
김명희



1. 1952년(68세)
2. 주부
3. 1998년-현재
공보출판부·홍보출판부·재정부·모금개발부 위원
강남청소년수련관·봉천종합사회복지관 부위원장
강남청소년수련관 위원장, 제1 회계이사
(현) 제1 서기이사, 시설운영사업팀 위원장
인사지도자양성부 위원
4. 강변교회 집사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공동대표
영성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한국보석경영학회 이사
(현) 국토교통부 NGO정책지원위원
행정안전부 성폭력 조사위원
5. Y를 알고 Y와 함께 한 20년이란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갔습니다. Y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특히 Y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소중한 인연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인생도 배웠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배님들의 헌신하시는 모습을 본받아 Y를 위해 사회를 위해 과연 얼마나 열과 성을 다 했는지 자문해 봅니다. 미력하나마 Y의 모든 분들, 이사님들, 실무자 여러분들과 협력하여 주어진 임무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제 인생을 Y와 함께 봉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큰 기쁨이며 행복일 것 같습니다. Y 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기 잘 넘기시고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5

황성연



1. 1964년(56세)
2. 심리상담전문가
3. 2005년-현재
가정상담실 상담자원활동가
성인부·여성참여팀·복지사업단 위원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부위원장
(현) 여성참여팀 위원장
4. 하사랑교회 권사
중구·금천구·마포구 건강지원센터 심리상담전문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주)휴먼스페이스 기업상담전문가
(현) 수원·인천가정법원 협의이혼 상담위원
서울성로원 외부이사
한국심리상담교육개발원 심리상담전문가
5. 가정상담 자원활동을 시작으로 봉천Y, 성인부와 여성참여팀으로 활동하면서 Y와 인연을 맺은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즐겁고 감사합니다. Y를 사랑하는 좋은 분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제 삶에 소중한 분들로 기억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큰 기쁨입니다. Y 활동을 통하여 삶에 대해 보다 넓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과 특히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Y를 통하여 만들어진 소중한 만남과 변화들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섬기고 변화시키는 소금과 등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Y에 힘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Y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6

전현숙



1. 1961년(59세)
2. 자원봉사이음 부대표
3. 1982년-현재
대학Y 회원
국제전선부·공보출판부·대학생부 간사
교육문화부·청소년조직부 부장
강남청소년수련관·연희청소년회관 관장
사무총장
(현) 여성참여팀 위원
4. 영락교회 성도
자원봉사협동조합 모아 대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현) (사)시민 이사,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감사
5. 대학Y에서 시작한 Y 활동은 평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대학Y를 통해 접한 정의·평화·환경보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삶의 방향과 지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Y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고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세계와 눈 뜨임을 주었습니다. 창립 2세기를 준비하는 Y 운동에 혼자 아닌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일원이 되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과 나무의 이름을 알아봅니다.



동백冬栢 *Camellia*



차나무과 Tea family 늘푸른나무

꽃이 드문 쓸쓸한 한겨울에 꽃을 피워서 이름에도
겨울 동동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겨울나무예요.
하얀 눈 속에서 빨강계 핀 꽃이 시들지 않은 상태로
봉오리째 떨어져서 예로부터 절개와 지조를
상징한다고 사랑 받아 왔지요.

“동백꽃 빨강계 멍이 들었소”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빨강 빛깔이 제일 많지만 하양, 분홍, 얼룩꽃도 있고
흙꽃 뿐만 아니라 겹꽃도 있어요.

잎이 두껍고 짙은 초록색으로 광택이 나는 것은
겨울철 햇볕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이랍니다.
가을에 검붉게 익는 동그란 열매 속에 든 씨앗은
옛날 여인들의 머리기름 짜는데 쓰였는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어요.

글 이경순 명예위원

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헬스·피트니스 3705-6030
구인 가사돌보미·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3705-6013~5
간병사 858-4516~7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녀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누리봄 www.bongchun.or.kr 888-7983